"식품클러스터 위상 높여야"

민주 김관영 도지사 후보, 식품클러스터 진흥원 찾아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식품에 관한 모든 체험 할 수 있는 푸드파크 조성, 식품산업 허브 되도록 지원"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지난 20일 익산에 소재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이하 식품 클러스터)을 찾아 국가식품 클러스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식품 클러스터 관계자로부터 기업 유치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시설 등을 둘러봤다.

김 후보는 "익산에는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식품 산업의 잠재력을 갖춘 도시"라며 "특히, 종합대학과 식품 클러스터,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등 농생명 산업과 연구 관련 기관이 집적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아시아 식품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푸드파크 컨트롤타워로서의 핵심시설 ▲공간 디자인으로서의 연관 시설 ▲지역 식품 원료 생산단지와 연계한 식품산업 체험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지난 20일 익산에 소재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이하 식품 클러스터)을 찾아 국가식품 클러스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후보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가클러스터의 위상을 높이고, 식품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푸드파크를 조성해 익산이 식품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김관영 후보 지지"

김 후보와 정책협약식도 가져

전북도 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박강수) 등 지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000인이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20일 김관영 후보 캠프에서 지지 선언과 함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김관영 후보와 전북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도민의 복지향상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을 상호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노인들을 위한 촘촘한 돌봄과 교육 및 맞춤 서비스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어르신을 잘 모시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의미로 세족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박강수 회장은 "노인과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도지사 후보 김관영이 꼭 압승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후보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복지현장 조성에 전북도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군민 염원 담아 개혁 이뤄낼 것"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필승' 출정식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는 오는 6월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필즉생 필즉사의 각오로 군민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캠프관계자들과 함께 '필승' 출정식을 가졌다.

최근 언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서며 고무적인 분위기를 뒤로 하고 최 후보의 첫 유세로 꼽은 곳은 자신의 정치적 초석이자 고향인 순창군 쌍치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의 세몰이가 본격화 됐다.

최 후보는 "감동과 희망의 순창, 군민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며 "순창은 지금 지역소멸이라는 참담한 위기까지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기반이탈,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문제 등 문제 뿐만 아니라 분열과 편가르기, 독식과 배척등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고 순창을 진단했다.

최 후보는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를 순창군정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떠나지 않는 순창을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민소득의 200만원 상향 지원, 농작업 대행비 지원 확대, 인일자리 3천개로 확대, 0~19세까지 월40만원 지원, 20세~39세까지 종자통장 월 30만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학교과서 '최대값' 표기 가능성?

민주 윤준병 의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교과서 전문용어, 국민 언어생활 일관성 등 현장 수요 고려
어문규범과 달리 표기할 수 있는 권한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20일,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이를 맞춤법의 변동에 따라 무조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일반의 언어생활과 편리성·일관성 등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2006년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표기와 표현에 따른 전문감수제를 도입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초·중등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은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도 한글맞춤법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한글맞춤법 제30항에 따른 '사이시옷' 표기는 어문규범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연구할 과제가 많은 조항이다.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는 합성어 조건을 파악하면서 한자어인지 순우리말인지를 구별하는 한자 지식이 폭넓게 필요하고, 발음할 때의 음운론적 현상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자어끼리의 결합은 사이시옷 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등 6개 단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반드시 써야한다.

그런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초·중등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전문용어에 '사이시옷'이 붙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대푯값, 기댓값' 등은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언어현실'을 이유로 한 단어짜리 합성어로 인정돼 사이시옷이 새로 삽입된 용어들이다.

이처럼, 광복 이후 일관성있게 사용됐던 '최대값'이나 '대표값' 같은 전문용어·학술용어가 한글맞춤법 개정에 맞춰 2008년에 급작스럽게 '최댓값'이나 '대푯값'으로 표기가 변경되었는데, 그러다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색함과 불편함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많다. 상당수의 수학 관련 전문서적들은 지금도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대표값, 기댓값' 등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국어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상 '사이시옷' 사용에서처럼 그러한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다소 발생해 언어생활의 편리성이나 전문용어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민일반의 언어생활과 편리성·일관성 등 교육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에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고, 그렇게 정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나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 내용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치도, 전북발전도 원팀으로"

민주 박용진 의원, 전북 찾아 지선후보자 지원 유세 나서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은 지난 21일 고향인 전북 지역을 찾아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전주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주군수로 출마한 황의탁 후보를 지원하며 시장과 상가방문 등 유세일정에 함께 결합했다. 이어 고향인 장수를 방문, 장수군수 후보로 나선 최훈식 후보와 양성빈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시장과 상가방문에 함께하고, 지원 유세에 나섰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전북 남원으로 이동, 남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최경식 후보를 지원했다. 특히, 남원에서는 전북도지사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와도 동행해 남원지역 합동 유세에 나섰다. 이후 곡장 인근의 순창으로 이동해 순창군수로 출마한 최기환 후보를 지원했다.

이후 6시부터는 전주로 이동해 전주시장으로 출마한 우범기 후보의 시장 및 상가방문 등 유세일정에 동행하면서 전북 지원 유세일정을 마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차범근과 손흥민이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이 팀으로 묶여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11명이 하나의 팀으로, 원팀으로 축구를 해야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정치도 축구와 마찬가지다. 정치도 전북발전도 원팀으로 가야 한다. 민주당의 여러 후보가 함께 승리해야 획기적인 발전 이끌 수 있다. 민주당도 책임을 갖고 전북지역 발전의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 피해자 코스프레 중단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김민영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의 공천 심사 탈락의 이유인 '아빠찬스'와 '정읍산림조합장 재직 당시에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천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피해자 흉내를 내는 김 후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관련 성명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의 2021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김 후보가 조합장 재직시절 임산물유통센터 건축에 대한 결산 과정에서 감가상각비용 7,771만원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의 분식회계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당은 "김 후보에 이어 취임한 현 조합장이 과거 김 후보 조합장의 '분식회계' 문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최근 갖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18일 열린 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 문제를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